

## <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 2017.04.30.)

### 프랭클린 미국 금리연동 특별자산 자투자신탁(대출채권) [펀드 코드: AN854]

투자 위험 등급 5등급 [낮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프랭클린 미국 금리연동 특별자산 자투자신탁(대출채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5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1.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투자자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li>·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시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li> <li>· 이 투자신탁은 해외대출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입니다. 본문의 “(2). 1. 주요 투자위험”에 열거된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감내할 수 있는 의사가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li> <li>· 집합투자기구가 법에서 정한 소규모 펀드(설정 1년 후 50억미만)인 경우 임의해지될 수 있으니, 투자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ul> <p>※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p>
-------------	------------------------------------------------------------------------------------------------------------------------------------------------------------------------------------------------------------------------------------------------------------------------------------------------------------------------------------------------------------------------------------------------------------------------------------------------------------------------------------------------------------------------------------------------------------------------------------------------------------------------------------------------------------------------------------------------------------------------

집합투자기구 특징	이 투자신탁은 해외대출채권 등에 주로 투자하는 『프랭클린 미국 금리연동 특별자산 모투자신탁(대출채권)』에 투자하여 이자소득 및 장기적인 자산 증식을 추구하며, 환헤지를 수행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분류	투자신탁, 특별자산,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집합투자업자	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주) (02-3774-0600)		
모집(판매) 기간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모집(매출) 총액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0조좌)
효력발생일	2017년 5월 17일	존속 기간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 <a href="http://www.kofia.or.kr">www.kofia.or.kr</a> ) 및 집합투자업자 인터넷 홈페이지( <a href="http://www.franklintempleton.co.kr">http://www.franklintempleton.co.kr</a> ) 참고		

종류(Class)	A	C	C-e	C-W	C-P	S	P
가입자격	가입제한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가입제한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에	온라인을 통해,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에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wrap)계좌를 보유한 투자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가입자에 한하여 발행

		하는 투자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자, 특정금전신탁	촉계좌를 통하여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유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되며, 판매수수료가 청구되지 않는 집합투자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 기준)		0.9% 이내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후취판매수수료		Class S에 한하여 3년 미만 환매 시, 환매금액의 0.15% 이내						
환매수수료		없음						
보수 (연순자산총액의 %)	판매	0.50	1.00	0.50	0.00	0.70	0.15	0.60
	운용 등	집합투자업자 보수 : 0.55, 수탁회사 보수 : 0.05,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 0.03						
	기타 주1)	0.0023	0.0023	0.0023	0.0024	0.0023	0.0022	0.0023
	총보수·비용	1.1323	1.6323	1.1323	0.6324	1.3323	0.7822	1.2323
	합성총보수·비용 비율	1.1365	1.6366	1.1369	0.6367	1.3369	0.7865	1.2375

주1) 기타비용은 증권에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으로써 2017년 4월 30일 기준으로 최근 1년 동안의 자료를 기초로 한 비용으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으며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 전체가 설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치를 산출할 수 없으므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주2) 총 보수·비용 비율은 집합투자기구에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3) 합성 총보수·비용비율은 해당 집합투자기구(자집합투자기구)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해당 집합투자기구(자집합투자기구)가 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한 것입니다.

주4) 동 집합투자기구의 다른 종류 수익증권(C-F, C-Pe)에 대한 세부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입 방법	(17시 이전) 다음영업일 기준가 매입 (17시 경과 후) 제3영업일 기준가 매입	환매 방법	(17시 이전) 제12영업일 기준가 제14영업일 지급 (17시 경과 후) 제13영업일 기준가 제15영업일 지급
기준가	구분	내용	
	기준가격 산정방법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직전일의 집합투자증권 총수로 나누어 산출	
	기준가격 공시방법 및 장소	－ 1,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 사 5 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하여 공시. 다만, 최초설정일[신규 수익증권의 종류를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 좌를 1 원으로 하여 1,000 원으로 공고. － 판매회사 영업점 및 집합투자업자( <a href="http://www.franklintempleton.co.kr">http://www.franklintempleton.co.kr</a> ),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 <a href="http://www.kofia.or.kr">www.kofia.or.kr</a> ) 인터넷 홈페이지	
	주 1)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 (1) 투자전략

###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해외대출채권 등에 주로 투자하는 『프랭클린 미국 금리연동 특별자산 모투자신탁(대출채권)』에 투자하여 이자소득 및 장기적인 자산 증식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2. 투자전략

#### 가. 기본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일부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는 외에 투자신탁 재산 전부를 모투자신탁이 발행한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의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또한 모투자신탁은 미국달러화로 표시되는 해외대출채권에 주로 투자하므로 모투자신탁의 수익은 관련통화의 환율변동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성과 비교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비교지수 산출기관의 상황, 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비교지수의 변경시에는 해당 내역을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http://www.kofia.or.kr)),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www.franklintempleton.co.kr](http://www.franklintempleton.c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비교지수 : Credit Suisse Leveraged Loan Index(90%) + Call Rate(10%)

\* Credit Suisse Leveraged Loan Index : 달러화된 레버리지론마켓에서 현실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종목을 대상으로 하는 지수로 Credit Suisse에서 1992년 1월에 발행하였으며, 비교지수의 가격 정보는 블룸버그 터미널을 통해서 조회 가능합니다. (블룸버그 티커: DLJLVAL Index)

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등

모투자신탁명		주요투자대상 및 전략
프랭클린 미국 금리연동 특별자산 모투자신탁(대출채권)	주요투자대상	해외대출채권 및 해외대출채권관련 ETF 에 50% 이상 투자
	투자목적	경쟁력 있는 이자소득 및 장기적인 자본이익을 추구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쟁력 있는 변동금리 인컴 추구를 주요 목표로 함</li> <li>* 비교지수: Credit Suisse Leveraged Loan Index(90%) + Call Rate(10%)</li> <li>- 미달러로 표시되는 자산에 투자하므로, 환율변동에 따른</li> </ul>

		환위험에 노출되며, 그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 해외대출채권에의 투자 부분은 프랭클린템플턴 그룹의 해외 자회사인 [Franklin Advisers,Inc.]가 운용업무위탁을 받아 운용
--	--	-----------------------------------------------------------------------------------------------------------------------

### 3. 운용전문인력

#### 가. 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2017.04.30.현재)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비고
			운용중인 집합투자기 구 수	운용자산 규모(원)		
백상훈	1972년	책임운용전문인력	36개	10,884억	당사 컴플라이언스팀 (1999-2000) 당사 채권운용팀 (2000-2008) 당사 FTMIS 팀 (2008-2009.4) 당사 채권운용팀 (2009.5-현재)	-
김강호	1983년	부책임운용전문인력	40개	11,892억	현대증권 장외파생 구조화상품팀(2009.12-2012.05) 당사 채권운용팀(2012.06-현재)	-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없음

주 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채권운용팀이 담당하며,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 2) 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나. 최근 3년간 운용전문인력 변경 내역

운용전문인력	운용 기간
김동일	2014.04.29 ~ 2016.05.31
김강호	2016.06.01 부터

#### 다. 위탁운용사 운용전문인력(2017.03.31.현재)

펀드 매니저	Alex G. Yu
운용 자산규모	약 US\$ 1,462.7 Mil
운용경력	Franklin Templeton Floating Rate Debt Group 의 vice president 이자 Portfolio Manager Wall Street Analytics 와 JPMorgan Chase Bank 에서 파이낸셜 애널리스트로 활동했음

※ 상기인이 모투자신탁의 해외위탁운용을 총괄하며 신탁재산운용은 공동운용방식(팀운용)으로 운용됩니다.

### 4. 투자실적 추이 (연도별 수익률, 세전기준)

[단위: %]

기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	--------	--------	--------	--------	--------

	2016.05.01~ 2017.04.30	2015.05.01~ 2016.04.30	2014.05.01~ 2015.04.30	2013.05.01~ 2014.04.30	2012.05.01~ 2013.04.30
프랭클린 미국 금리연동 특별자산 자투자신탁(대출채권)	11.51	1.37	4.44		
비교지수	7.45	0.04	3.35		
프랭클린 미국 금리연동 특별자산 자투자신탁(대출채권) Class A	10.26	0.24	3.27		
비교지수	7.45	0.04	3.35		

주1) 비교지수 : Credit Suisse Leveraged Loan Index(90%) + Call Rate(10%)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상기사항은 대표종류 수익률만 기재하였으며, 나머지 종류에 대한 수익률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 1. 주요 투자위험

아래의 투자위험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 분	투 자 위 험 의 주 요 내 용
원본 손실 위험	<p>✓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p>
시장 및 개별 이자율 위험	<p>✓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채산을 주로 해외 (주로 미국) 변동금리 대출채권에, 일부는 대출채권을 기반으로 한 구조화된 증권(대출채권담보증권(CLO) 등)과 대출채권 관련 ETF 등에, 투자함으로써, 해당 대출채권과 관련된 시장이자율과, 개별 및 구조화된 그룹 대출채권의 신용상태와 담보 및 금리 결정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개별이자율의 변동과 함께 투자신탁채산의 가치가 변동됩니다 (단, 대체로 이자율 변동과 투자신탁채산 가치의 변동은 역의 관계입니다). 관련 시장 금리와 개별 대출채권 금리는 거시경제환경과, 개별 대출채권이 속한 산업과 대출채권 차주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p> <p>✓ 일반적으로 변동금리 대출채권은 고정금리 대출채권에 비해 금리의 변동에 따른 투자신탁채산의 가치 변동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여전히 시장이자율의 변동에 따른 투자신탁채산 가치의 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시장이자율의 유리한 변화에 따른 투자신탁채산의 가치의 상승이 고정금리 대출채권에 비하여 적을 수 있습니다.</p> <p>✓ 특히 동 투자신탁에서 직/간접적으로 투자할 예정인 해외 대출채권은 국외 대출자산으로 국내 거시경제지표의 변화보다는 국제 경제 전망, 관련 국가의 경제 전망, 환율 변동 등 해외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더 민감하게 변동될 것입니다.</p> <p>✓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대출채권은 간혹 발행회사의 채무 또는 재무적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주식 또는 주식관련 증권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매우 드물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전환되는 주식 또는 주식관련증권이 상장된 것이라면 상장 주식의 경우에 해당하는 시장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만약 비상장 주식이나 주식관련 증권으로 전환될 경우 비상장 주식에 해당하는 위험 즉, 가격산정의 어려움, 매매의 어려움 등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p>
신용 위험	<p>✓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할 미국의 변동금리 대출채권은 차주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채권의 금리가 달라지며, 차주 신용상태의 변화는 대출채권 가치 변동에 큰 영향을</p>

	<p>끼칩니다. 차주의 신용상태는 거시경제와 관련 산업의 상황에 따라 크게 영향 받을 수도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변동금리 대출채권은 주로 국제기준 신용등급이 투자등급 하한선인 <b>BBB-</b> 보다 훨씬 낮습니다. 대체로 신용등급이 낮아지는 정도에 비해 부도 확률이 더 빠른 속도로 높아지는 만큼, 이 투자신탁의 신용위험은 해외의 투자등급 이상의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에 비하여 훨씬 높습니다.</li> <li>✓ 특히 무등급 또는 부도기업의 대출채권에도 투자가 가능합니다(<b>C,D</b> 등급까지 가능). 이러한 대출채권은 기대수익이 높은 반면, 금리 상승기에 가치 하락이 상대적으로 더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li> <li>✓ 이 투자신탁이 일부 투자할 수 있는 대출채권담보부증권(<b>CLO</b>)은 그 기초자산인 대출채권의 성격과 구조화 특성에 따라 신용위험이 달라집니다. 이 투자신탁은 <b>CLO</b>의 에퀴티지분(<b>equity tranche</b>)에는 투자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에퀴티지분 보다 상위의 경우에도 구성 채권의 신용등급 및 구조화 특성에 따라 신용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li> <li>✓ 신용위험은 대출채권의 선순위 여부, 담보 유무, 기타 발행조건에 따라 달라 지는데, 부도시의 담보물 평가 및 현금화 가능성 예측의 어려움 등과 같이 다양한 발행조건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시장이 급변하거나, 변동금리 대출채권의 수요/공급 변화에 따른 유동성 악화시에 신용위험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li> <li>✓ 펀드 설정 초기 또는 다른 이유로 펀드의 규모가 충분치 않을 경우, 분산투자의 한계로 인하여 신용위험이 증폭될 수도 있습니다.</li> </ul>
유동성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동금리 대출채권 펀드는 <b>ETF</b> 형태를 제외할 경우, 제도화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에 비하여 유동성이 매우 낮습니다. 긴 환매기간이 그러한 유동성 위험의 상대적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li> <li>✓ 시장의 변화에 따라 변동금리 대출채권의 수요/공급 상황이 급변할 수 있는 바, 그러한 경우 유동성 위험이 예상보다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li> <li>✓ 상대적으로 복잡한 대출 또는 구조화 조건, 상대적으로 낮은 신용평가 카버리지, 제도화된 거래시장의 부재 등이 유동성 위험을 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li> <li>✓ 드문 경우이지만 대출채권이 발행기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주식이나 주식관련 증권으로 전환되고 그 전환된 주식 또는 주식관련 증권이 비상장된 경우 유동성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li> </ul>
환율 변동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투자신탁은 달러화로 환전된 자금 및 달러화로 표시되는 투자금액이 원/달러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헤지하기 위해서, 관련 파생상품으로 헤지목적의 거래를 실시할 예정이지만 현실적으로 완전 헤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설정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환헤지거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완전한 환헤징 및 환헤지거래 불가에 따른 환차손익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li> <li>✓ 특히 일정기간 이상 환율이 같은 방향으로 큰 폭으로 변한다거나, 환매기간의 경우 및 투자신탁재산의 가격 산출 주기와 환율 결정 주기의 불일치 등의 경우에 불완전한 헤징의 가능성과 규모가 커질 수 있습니다.</li> </ul>
파생상품 투자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래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li> <li>✓ 또한 파생상품은 주로 장외에서 거래되는 특성상, 거래상대방위험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li> </ul>
저등급 대출채권의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투자신탁은 기대수익을 높이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일부를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더 낮은 대출채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출채권은 기대수익이 높은 반면, 시장상황이 불리해질 경우 투자가치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더 커지는 위험이 있습니다.</li> <li>✓ 부도 대출채권을 포함할 수 있는 저등급 대출채권은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부도 시에 담보물 등의 처분이 예상보다 어려워질 경우 현금화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수 있으며 예상치 못한 가치 손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li> <li>✓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더 낮은 대출채권의 경우, 예상치 못한 시장 급변시에 변동금리 대출채권 펀드에서 흔히 기대되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률 변동성 보다 단기 변동성이 훨씬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li> </ul>
ETF 투자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투자신탁은 유동성 관리의 일환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일부를 투자목적에 맞는 <b>ETF</b>에 투자하는 바, <b>ETF</b>가 상장폐지 되거나 유동성이 예상보다 크게 낮아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장폐지 또는 유동성 저하의 경우 이 투자신탁 전체의 단기 유동성이 악화되는 위험이 있으며, 특히 상장폐지의 경우 투자금을 현금화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일부 투자금 상실의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li> <li>✓일반적으로 ETF는 추적대상지수와 동일한 수익률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대상 ETF는 종가와 NAV(순자산)사이의 괴리, 보수, 수수료 등 비용, 지수의 불완전 복제, 해당국의 법에 따른 ETF 내 종목편입의 제한, 선물 롤오버(Rollover), ETF의 현금보유(cash drag), 통화헤지비용(currency hedging cost), 자본이득 배분시 세금효과 등으로 인하여 추적대상 지수와 동일한 수익률이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li> </ul>
<b>대출채권담보부증권(CLO) 투자위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 투자신탁은 투자목적 달성에 필요할 경우 투자신탁재산의 일부를 대출채권담보부증권에 투자함에 따른 대출채권담보부증권 투자위험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에퀴티지분(equity tranche) 보다 상위의 등급에 투자하지만 기초자산의 성격, 신용등급, 구조화 특성에 따라 약속된 이익과 원금의 일부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li> <li>✓시장의 급변시 유동성이 빠른 속도로 악화될 수 있으며, 신용 악화시에 기초자산의 내용에 따라 현금화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li> </ul>
<b>긴 환매기간의 위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긴 환매기간으로 인하여 환매기간중에 상실하는 이자수익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위험이 있습니다.</li> </ul>
<b>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에 따른 위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외 유가증권에 투자할 경우 해당 특정 외국의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특정 외국의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배당소득, 세후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li> </ul>
<b>하이일드펀드/하이일드 ETF 투자관련 투자위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 투자신탁은 투자등급 이하의 고수익증권에 투자하는 하이일드 펀드 또는 하이일드 ETF에 일부 투자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투자는 높은 신용위험을 수반합니다. 하이일드 채권 등 투자등급 이하에 투자하는 하이일드 펀드(하이일드 ETF 포함)는 위험도가 높은 투자전략으로 간주되며, 하이일드 펀드에서 투자하는 자산에는 신용등급이 없거나(unrated) 부실증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이일드펀드에서 투자되는 저등급, 고수익 증권은 고등급, 저수익 증권에 비해 높은 가격 변동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침체기나 고금리 시기에는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의 부실율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li> </ul>
<b>투자신탁 규모 변동에 따른 위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 투자신탁의 규모가 환매 등에 의해 일정 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 원활한 분산 투자가 불가능해 질 수도 있습니다.</li> </ul>
<b>순자산가치 변동위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매청구일과 환매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li> </ul>
<b>해지 위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이거나,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투자자의 동의 없이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li> </ul>
<b>환매연기위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익자가 중도 환매하는 경우에는 금융시장의 환경변화와 금융결제와 관련한 송금 지연 등 사유발생시 환매금액 지급연기의 가능성이 있습니다.</li> <li>✓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거나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감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li> </ul>
<b>조기환매 위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익자가 환매요청시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가 부과되며 동 환매수수료는 신탁재산으로 귀속됩니다.</li> </ul>
<b>오퍼레이션 위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외투자의 경우 국내에만 투자하는 경우와 달리 시차에 의한 시장폐장 및 개장시간의 차이로 신탁재산의 평가에 있어 시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매절차에서 해외시장의 오퍼레이션 관행이 다양하기 때문에 결제과정에서의 위험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li> <li>✓대출채권의 경우 외부 업체에 의한 가격산정이 원활하지 못하여 가격산정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li> </ul>

※ 이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상세 투자위험은 반드시 정식투자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위험관리

모투자신탁에서의 투자금액이 원-달러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헤지하기 위해서, 모투자신탁 수준에서 파생상품에 대한 헤지목적의 거래(목표헤지비율: 100% 추구)를 실시할 예정이지만

현실적으로 완전 해징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설정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환해지거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환해지]**

펀드의 매수시정보다 매도시점에 환율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환해지를 실시하는 경우 추가적 손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펀드의 매수시정보다 매도시점에 환율이 올라가는 경우 환차익을 얻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환해지를 실시하는 경우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환차손익은 투자자에게 귀속되며,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III. 집합투자기구의 기타 정보

#### 1. 과세

가. 투자자는 투자대상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배당 및 양도차익(해외주식 매매차익 포함)에 대하여 소득세 등(개인, 일반법인 15.4%, 지방소득세 포함)을 부담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나.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 등으로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 한도 (퇴직연금 가입자부담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연금수령요건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세액공제	<p>연간 연금계좌 납입액 중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3.2% (지방소득세 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6.5% (지방소득세 포함)</li> <li>-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3.2% (지방소득세 포함)</li> </ul> <p>(2017년 1월 1일 이후 납입금액부터 적용)</p>
연금수령시 과세	<p>연금소득세 5.5 ~ 3.3%(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단, 이연퇴직소득은 3.3% (지방소득세 포함)</p>
분리과세한도	1,200만원(공적연금소득 제외)
연금외수령시 과세	<p>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p>
해지가산세	없음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	<p>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p>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13.2%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 P 클래스(퇴직연금) 가입자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 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자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 세액공제(2015년 1월 1일부터):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7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과세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의 다양성: 퇴직연금은 퇴직연금 수령시 일시금 또는 연금형태로 수령할 수 있으며, 퇴직급여 수령방식에 따라 과세 체계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퇴직연금종합안내(<http://pension.fss.or.kr>)의 “과세제도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정부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 3. 집합투자기구의 요약 재무정보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http://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http://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http://kofia.or.kr)),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franklintempleton.co.kr](http://www.franklintempleton.co.kr))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http://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http://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http://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franklintempleton.co.kr](http://www.franklintempleton.co.kr))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http://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franklintempleton.co.kr](http://www.franklintempleton.co.kr))